# 각필구결 자료의 한자와 구결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 -『유가사지론』 권5·8을 중심으로-

李 勇*


### 요약

이 글에서는 『유가사지론』 권5·8의 한자와 그 각각의 한자에 현토된 각필구결점이 지니는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다. 첫째, 각필구결점의 기준위치와 변이위치에 대한 이해이다. 이의 논의를 위하여 우선 각필구결점의 현토는 한자를 사각형으로 가정하고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 때문에 기준모서리의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기준모서리가 정해지게 되면 실제 물리적 위치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사각형의 네 변이 서로 유대적 관계를 지닌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둘째, 앞의 분석을 토대로 한자의 자형과 각필구결점의 현토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자의 자형을 '□, △, ▽, ◇'으로 나누어 '△, ▽'에 해당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에서 멀어질수록 점토를 찍는 위치의 변이가 커짐을 살폈다. 변과 방이 나뉘는 한자나 머리와 받침으로 나뉘는 한자 역시도 각필구결점의 현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변과 방이 있는 한자를 파악할 때는 그 변과 방을 각각 1:1로 대응시켜 점을 현토하는 경향도 있었다.

셋째, 한자의 자형 때문에 점이 불확실한 위치에 찍히는 것처럼 보이는


*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직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지시선, 경계선, 구결자가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각필구결, 한자, 지시선, 경계선

## 1. 머리말[1)]

2000년 7월 2일에 '성암고서박물관(誠庵古書博物館)'에 있는 『유가사지론』 권8에서 최초로 각필구결이 발견된 이래 다른 자료에서도 발견되면서 각필구결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각필구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해독과 이 당시 문법 등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나머지 기초적인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없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반성에 대한 수용의 의도도 일부 지니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유가사지론』 권5·8의 한자와 그 각각의 한자에 현토된 각필구결점의 상관관계를 살펴 한자의 자형이 각필구결점의 현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유가사지론』 권5·8에서는 한자를 사각형으로 가정하고 점을 찍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난다. 이런 변이의 유형들 중 한자의 자형이 『유가사지론』 권5·8 점토의 현토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게 된다. 『유가사지론』에서는 한자를 사각형으로 생각하고 현토하지만 실제의 자형이

* 이 글은 학술진흥재단의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3-A00078)"

1) 이 연구의 원래 제목은 "각필구결 자료의 한자와 구결점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과 해석-『瑜伽師地論』 권5와 권8을 중심으로-"이나 이 제목으로는 다루어야 할 게 많아서 위의 제목으로 집약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사각형의 모서리를 어떻게 상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사각형으로 보기 어려운 한자들에서 사각형의 모서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정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유가사지론』 권5·8 각필구결 연구에 있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첫째, 각필구결점의 기준위치와 변이위치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각필구결의 현토자가 한자를 실제로 사각형으로 가정하고 현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결토 가변성의 한계, 사각형 네 변의 유기적 관계, 위치의 변이와 반복의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둘째, 각필구결점의 기준위치와 변이위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자의 자형과 각필구결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자의 자형을 '□, △, ▽, ◇' 등으로 나누어 점이 찍히는 양상을 관찰하게 된다. 그리고 변과 방이 나뉘는 한자나 머리와 받침으로 나뉘는 한자는 한자 각 부분을 글자의 물리적인 위치와 달리 변과 방을 각각 1:1로 대응시켜 점을 현토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셋째, 결국 한자의 자형 때문에 점이 불확실한 위치에 찍히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지시선, 경계선, 구결자가 보조적으로 쓰일 수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기도 한다. 이는 결국 한자의 자형이 점토의 현토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2. 각필구결점의 기준위치와 변이위치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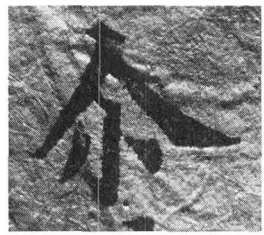
각필구결점의 기준위치와 변이위치에 대해서는 장경준(2002ㄷ, 2004)에서 논의한 바 있다. 장경준(2002ㄷ:12)에서는 "'能'자와 같이 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이 사변형에 가까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尒'자와 같이 자형이 마름모꼴인 경우에는 실제 현토 위치가 기준위치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글자의 자형이 현토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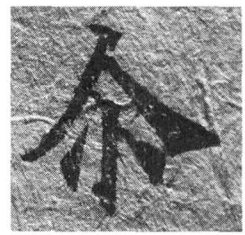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우선 [그림 1~3]을 보기로 하자.



[그림1] 能(05:13:19)



[그림2] 亦(5: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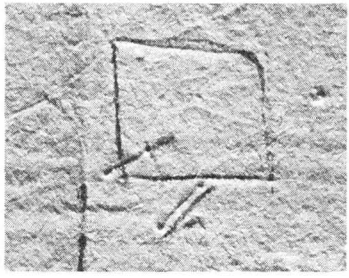


[그림3] 亦(8:8:20)

위에서 [그림 1], [그림 2], [그림 3]의 단점은 모두 자토구결의 'ㅎ'에 해당하는 점토가 현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지만,[2] 대략 [그림 1]의 '能'은 통사적 분포로 볼 때 부사가 되어야 하므로 '能'의 오른쪽 하단에 찍힌 단점은 자토구결의 '能ㅎ'와 관련시켜 '-ㅎ'에 해당하는 위치에 현토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2]의 亦(5:6:22)와 [그림 3]의 亦(8:8:20)도 둘 다 각각 대등하게 나열된 절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으므로 'ㅎ'로 보아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토구결자의 '-ㅎ'에 대응된다고 보이는 단점이 '亦'에는 각각 다르게 현토되어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하여 장경준(2002ㄷ:12)에서는 '亦'의 모양이 마름모꼴이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았다. 장경준(2002ㄷ)은 한자의 자형과 현토 위치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다. 주장의 진위 여부는 별개이다.

2) 여기에서는 각각의 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ㅎ'로 해독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각필구결의 해독에 대해서는 특히 이승재 외(2005)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부터는 한자의 자형과 현토 위치가 서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유가사지론』 권 5·8에서는 한자를 사각형으로 파악했다는 것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8:10:22 난상)



[그림 5] (8:10:22)

위의 [그림 4]는 [그림 5]에 현토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난상에 다시 현토한 것이다. 이때 같은 한자를 다시 쓰기보다는 사각형으로 대신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필구결 현토자들이 한자를 사각형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대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3] 한자를 사각형 이외의 다른 모양으로 파악했었다면 난상에 다른 모양이 표시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자가 사각형으로 이루어진다고 파악하고 그 한자에 각각의 구결자에 해당하는 점의 위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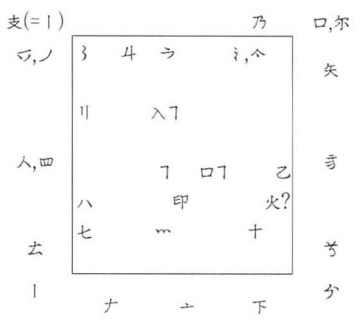
---

3) 이에 덧붙여 일본의 훈점자료들의 경우 그 점도가 있고 이 점도들에서는 한자를 사각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로 한다.

4) 각각의 각필구결점에 대응되는 구결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통사론적 특성이나 자토구결과의 대응 양상을 바탕으로 논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기에서는 그 과정을 생략한다. 기존의 논의와 중복되기도 하거니와 필자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동안 각필구결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는 장경준(2002ㄱ)의 점도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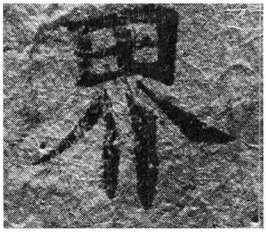
<장경준(2002ㄱ)>

| | | | | |
|---|---|---|---|---|
| 11 | 12 | 13 | 14 | 15 |
| 21 | 22 | 23 | 24 | 25 |
| 31 | 32 | 33 | 34 | 35 |
| 41 | 42 | 43 | 44 | 45 |
| 51 | 52 | 53 | 54 | 55 |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한자를 사각형으로 인식하고 점을 찍는 경우에는 한자가 사각형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가 생긴다. 특히 네 모서리에 가까이 현토되는 점토가 변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때 그 변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변이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진행되는지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한자에 해당하는 예로 '界'를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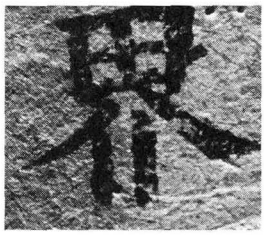
[그림 6] (8: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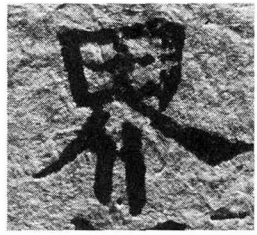


[그림 7] (8:2:14)

---

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장경준(2002ㄱ)의 점도에 대하여 완전히 일치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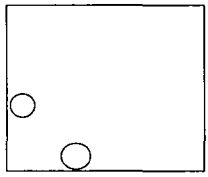

[그림9] (5:17:16)


[그림10] (5: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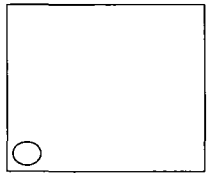

[그림8] (5:6:4)

글자의 모양이 '◇'에 가까운 '界'의 경우에 [그림 6], [그림 7]에서는 '介'에서 '人'의 왼쪽 획의 끝을 사각형의 왼쪽 아래 모서리로 파악하여 42(·)을 현토하고 있다. 반면에 [그림 8], [그림 9]에서는 '介'의 중앙 왼쪽 획(丿)의 끝을 사각형의 왼쪽 아래 모서리로 파악하여 자토의 'ㄴ'에 해당하는 42(·)을 현토하고 있다. 이 중에서 [그림 9]는 [그림 10]과 비교하면 다소 곤욕스럽기까지 하다. [그림 10]은 자토의 'ㅺ'에 해당하는 43(·)을 현토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림 10]의 단점이 [그림 9]의 단점보다 중앙에 가까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둘의 절대적 위치가 매우 가깝다. 실제로 같은 점을 표시하는 [그림 6], [그림 7]과 [그림 9]의 사이보다 [그림 9]와 [그림 10]의 사이가 더 가깝다. 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장경준(2002ㄷ:21)에서는 모서리의 위치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 이를 위의 현상에 대한 설명에 가져올 수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볼 때, '界'에 찍히는 42(·)들은 모서리의 위치가 가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다. 이에 따라 42(·)은 변이의 영역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에서 더 나아가 기준이 되는 모서리가 정해지고 그런 다음에 점토가 찍힐 때에는 그 점토의 변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그림 12]

위에서 [그림 11]은 '界'에 42(·)이 현토되는 물리적인 위치의 변이를 표시한 것이고 [그림12]는 42(·)의 심리적인 위치의 변이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6]과 [그림 7]의 기준모서리가 같고 [그림 8]과 [그림 9]의 기준모서리가 같은데, 기준모서리가 정해진 다음에는 같은 점토를 나타내는 점의 변이가 크지 않다. [그림 10]의 경우에도 모서리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한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유가사지론』 권5·8 점토의 변이가 매우 큰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위치 변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기준모서리의 변이를 고려하지 않은 위치 변이이다. 다른 하나는 기준모서리의 변이를 고려한 위치 변이이다. 기존에는 모서리를 고려한 위치 변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5]

5) 장경준(2004:42-43)에서는 구결점의 위치 변이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개념을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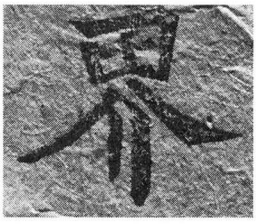
(1) 변이위치: 독자가 구결점을 판독한 결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위치, 즉, 현토자가 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 현토 위치로서 위치 변이의 결과.

(2) 기준위치: 판독된 구결점에 대한 해석을 반영한 추상적인 위치. 즉, 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과 무관하게 현토자가 구결점을 달려고 의도한 위치로서 위치 변이가 일어나기 이전의 위치.

이러한 정의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변이위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취한다. 물리적인 변이위치와 모서리를 고려한 변이위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사각형의 네 변이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필구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구절말 현토'를 들 수가 있다. 각필구결에서는 음독구결과 마찬가지로 구절말에 몰아서 구결을 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자에 함께 달리는 각필구결점들이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현토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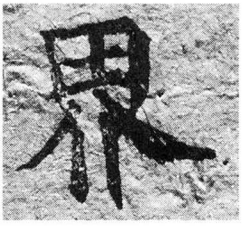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장경준(2002ㄷ:18)에 인용되었던 예들을 가져오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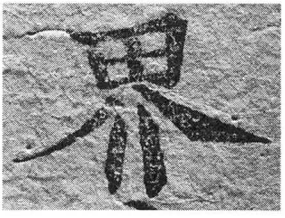
[그림 13] 界(8:2:22){十}



[그림 14] 界(8:21:7){十, 夕, 丨}



[그림 15] 界(5:8:21){夕}



[그림 16] 界(8:2:20){七,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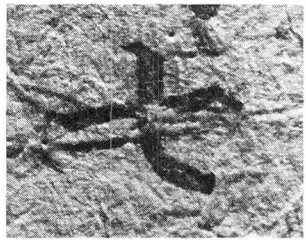
[그림 17] 界(8:4:4){七, 十}

위의 그림들을 바탕으로 장경준(2002ㄷ:16)에서는 '界'자의 경우에 점도에서 사각형 아래 부분의 양쪽 모서리 끝을 서로 대칭되게 상정하여 현토할 수도 있고 비대칭적으로 상정하여 현토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기인한다면, 사각형의 네 변은 서로 유기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본다면, 각각의 변은 서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界'에 있어서 42는 모서리의 끝으로 상정할 수 있는 위치를 두 군데 가질 수 있는 데 반하여, 44는 모서리의 끝으로 상정할 수 있는 위치를 한 군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각형 아래 부분의 양쪽 모서리 끝에서 왼쪽 부분은 모서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가변적인 데 비해 오른쪽 부분은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모서리 부분이 서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尒'의 경우에는 오른쪽 부분은 모서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가변적인 데 비해 왼쪽 부분은 모서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6] 이렇게 하지 않으면 42~44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사각형 각변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로 '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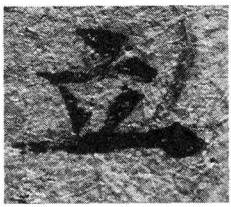
[그림 18] (5:2:11){ㅣ,ノ十口}

[그림 18]에서는 '七'에 점토를 찍으면서 24가 가운데 윗부분이 되자 51은 가로획의 왼쪽 끝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판독을 생각지 않고 찍었다면 51이 아래쪽 가운데 부분이 되었을 수도 있다. 결국 현토자가 점을 현토할 때 전체적인 고려를 생각했다고 보지 않는 한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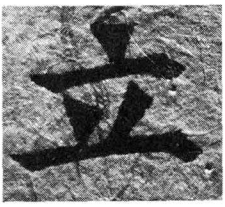
6) 이에 대한 설명은 장경준(2002:19)를 참조하기 바란다.

각의 점에 대한 판독과 해석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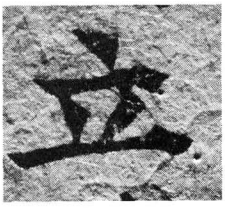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모서리 위치의 변이와 반복은 서로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1] (5:10:16){ㅣ,ㅋ}



[그림 19] (5:10:18){ㅣ,ㅋ}



[그림 20] (5:10:20){ㅣ,ㅋ}

『유가사지론』 5권에서 10:16부터 11:4까지는 立에 [24(·), 55(·)]이 달리는 예가 연속해서 7회 나온다. 이때 첫 예인 [그림 21]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림 19], [그림 20]처럼 토가 달린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5권 전체를 통해서 볼 때, 立의 24는 주로 [그림 19], [그림 20]처럼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반복될 경우에는 모서리 위치를 잡을 때 반복되는 양상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24의 위치는 [그림 19], [그림 20]이 오히려 예외적이다.[7]

## 3. 한자와 자형과 각필구결점의 상관관계

다음으로는 한자의 모양과 각필구결점의 현토 위치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사실 한자의 모양이 사각형에 가까운 경우에

7) 이와 관련하여 『유가사지론』 권5·8 프로젝트에서는 [그림19], [그림 20]의 유형에 달리는 24는 '='을 달아서 구별하고 있다. '='는 원래 달아야 할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는 각필구결점을 달 때, 원래의 위치에 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자는 그 모양이 사각형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토를 할 때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서는 '△, ▽'에 속하는 한자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이에 따른 설명을 하기로 한다. '△'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念'을 택하고 '▽'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事'를 택하기로 한다.

[그림 22]의 '念'은 윗부분이 '人'자로 이루어져 있어 '△'형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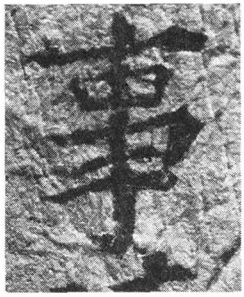
[그림 22] (8:3:6){ㄨㅅㄱ, ㅣ, ㅡ}



[그림 23] (8:3:6){ㄱ,ㄨㅅㄱ, ㅣ, ㅡ}

[그림 22]의 '念'에 현토된 구결과 [그림 23]의 '意'에 현토된 구결은 같은 통사적 환경에서 사용된 것이므로 같은 점을 찍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른쪽 윗변에 해당하는 것이다. '意'자에서 24(·)은 立의 각진 부분을 모서리로 삼아 현토하고 있다. '立'는 각진 부분을 찾을 수 있으므로 24(·)를 현토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念'자는 글자의 윗부분이 '△'형인 까닭에 오른쪽 윗변 모서리를 잡기가 어렵다. [그림 22]에서 보면, 두 획이 모이는 위치의 오른쪽을 기준모서리로 잡고 24(·)을 현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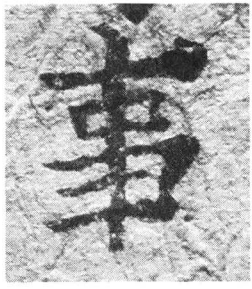
[그림 24] (5:2:8){ㄱ}



[그림25] (5:20:4){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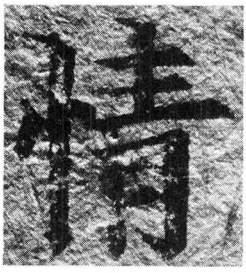
[그림 26] (8:11:6){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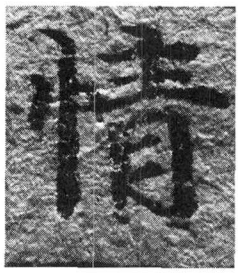
[그림 27] (5:2:9){ㅈ,ㄱ}

'事'자의 경우에는 아래 부분이 삼각형에 가깝다. 이때에는 위의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운데 획이 오른쪽 아래 모서리[그림 24, 26]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왼쪽 아래 모서리[그림 26]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자의 자형에 따라서는 하나의 획이 두 모서리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잘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림 27]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그림에서는 가운데 획이 모서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에도 한자의 자형이 모서리의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운데 획이 제대로 인쇄되어 나오지 않자 ㅋ를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잡았다. 이처럼 글자의 자형은 기준모서리 위치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자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변과 방, 머리와 받침 한자를 이루는 부분들의 상호 관계가 현토에 영향을 주는가의 여부이다. 여기에서는 변과 방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8] (5:6:13①){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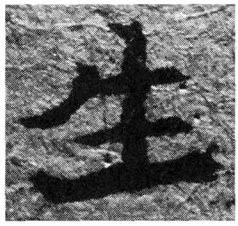


[그림 29] (5:6:13②){ㄱ}



[그림 30] (5:7:15)

[그림 28]과 [그림 29]는 모두 33의 위치에 현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두 그림에서는 33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변과 방이 구결을 현토하는 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8]에서는 물리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33을 현토하고 [그림 29]에서는 변과 방이 1:1로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변과 방 사이에 33(·)을 현토하고 있다. [그림 30]의 '彼'자의 경우에는 33의 실제 물리적인 위치는 오른쪽으로 가야 하지만 변과 방을 1:1 대응으로 보아 변과 방 사이에 33(·)의 점토를 찍었다. 그런데 우리는 변과 방 사이에 점을 찍는 이유에 대하여 '彼'의 경우에는 방에는 33의 점을 찍을 만한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변과 방 사이에 찍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점을 찍은 배경에는 변과 방을 1:1로 대응되는 것으로 보는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림 31] 生(8:5:22){ㅣ}



[그림 32] 性(5:16:16){ㅣ,ㅿ}



[그림 33] 生(8:3:10){ㅣ}



[그림 34] 生(8:9:16){ㅣ}

장경준(2002ㄷ:22)에 인용된 위의 그림들을 비교해 보면 24(·)이 '生'이 단독으로 쓰이느냐 다른 글자를 이루기 위해서 방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곳에 현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生'의 경우에는 첫번째 가로획의 오른쪽 끝을 기준모서리로 삼고 24에 점토를 현토하였지만 '性'에서는 '生'의 가운데 획의 끝을 오른편 위쪽 모서리로 삼아 점토를 현토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모서리가 바뀐 것은 변과 방의 관계를 통해서 글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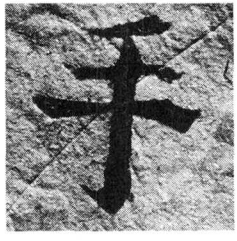
이제까지 기준모서리가 한자의 자형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가변적인 기준모서리를 택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장경준(2004)에서는 점토의 세분이 모서리의 기준을 가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 견해는 타당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8] 한자를 고려해서 현토하였기에 이처럼 복잡하게 현토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모서리의 기준

을 가변적인 것으로 택했기에 각필구결점의 위치가 복잡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9] 모서리의 기준이 가변적이지 않았다면 이처럼 각필구결점들을 이처럼 복잡하게 찍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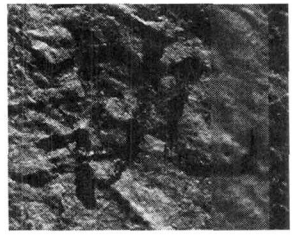
## 4. 한자와 지시선, 경계선, 구결자의 상관관계

한자의 자형이 점을 현토할 때 영향을 주어 여러 가지 부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부호를 사용하게 되는 예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형과 점의 현토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한자의 자형과 관련하여 지시선을 쓰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그림 35] (5:7:1)지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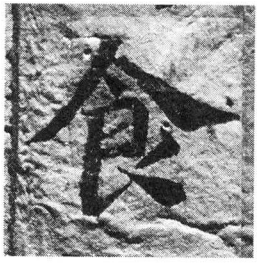
[그림 36] (5:6:23){ㄴㄱㅣ十}

8)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서민욱(2004)를 참조.

9) 이와 관련하여 이승재(2005)에서는 『유가사지론』은 자획 기준 방식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훈민정음해례본』, 『용비어천가』, 『훈몽자회』에서 사성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주본화엄경』은 공간 분할 방식을 택했는데, 이는 『훈민정음해례본』과 『용비어천가』의 구두점 및 『석봉 천자문』의 사성점 기입법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형에 속하는 '手'자의 경우에는 글자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 [44(.·)]에 점토를 기입하면 55 위치에 기입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앙에 길게 그은 획의 밑 부분을 오른쪽 아래 모서리로 잡기도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42 위치와 43 위치가 혼란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시선을 기입하고 위의 執자에 手자에 넣어야 할 점토를 기입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자의 자형과 관련하여 경계선이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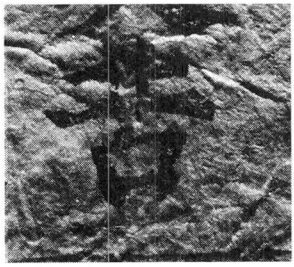
[그림 37] (5:10:23){ ᄀ, ᄀ}

'食'자는 한자의 위가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토구결의 'ᄀ'에 해당되는 22(·)을 찍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자 삼각형의 꼭지 부분에 급기야 22(·)를 찍게 된다. 이때 경계선(「)을 그어 점을 찍은 위치가 22임을 표시하고 있다. 'ᄀ'에 해당하는 점토는 삼각형의 오른쪽 밑변에 현토하였는데 이것은 22가 삼각형의 꼭지 부분이 되자 변별을 위해 24의 기준이 되는 모서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해당되는 구결 위치를 상정하고 구결자를 찍지만 글자의 자형 때문에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결자를 각필로 써서 그 판별을 돕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그림 38] (5:1:18)



[그림 39] (5:3:17)



[그림 40] (8:8:4)

위의 [그림 38], [그림 39], [그림 40]에서는 모두 구결자가 점토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力'자의 경우에는 위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2~32를 찍기가 매우 어렵다. 현토되어 있는 위치가 22와 혼동될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한자의 획 때문에 어디 마땅히 찍을 만한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점토를 찍은 뒤에 구결자 'ㅣ'를 각필로 적은 것이다. '苦'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언뜻 33~43(·)을 '口'의 중간에 찍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43(·)과의 혼동이 생긴다. 따라서 '口'의 위에 점을 찍고 구결자 '印'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0]도 [그림 39]와 상황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본다.

##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유가사지론』 권5·8의 한자와 그 각각의 한자에 현토된 각필구결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각필구결점의 기준위치와 변이위치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필구결점의 현토는 한자를 사각형으로 가정하고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으로 모서리 위치의 변이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모서리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면 실제 물리적 위치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각형 네 변의 유대적 관계, 위치의 변이와 반복의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둘째, 각필구결점의 기준위치와 변이위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자의 자형과 각필구결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한자의 자형을 '□, △, ▽, ◇'으로 나누어 점이 찍히는 양상이 '□'과 크게 달라지는 '△, ▽'에 해당하는 자형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형을 가진 한자들의 점토가 찍히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한자를 '□'으로 가정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변과 방이 나뉘는 한자나 머리와 받침으로 나뉘는 한자 역시도 각필구결점의 현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았다. 변과 방이 있는 한자를 파악할 때는 그 글자를 물리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변과 방을 각각 1:1로 대응시켜 점을 현토하는 경향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한자의 자형 때문에 점이 애매한 위치에 찍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지시선, 경계선, 구결자가 이러한 경우에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이것은 한자의 자형이 점토의 현토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직도 그 양이나 질에서 미흡하기 그지없다. 『유가사지론』 권5·8에 나오는 한자들을 모두 살피는 작업이 워낙에 방대한데다가 그 검토 또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작업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더불어 『화엄경』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화엄경』에 대한 연구는 『유가사지론』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고정의(2004), 「口訣 硏究의 現況과 課題」, 『口訣硏究』 12, pp. 5-44.

김영욱(2001), 「瑜伽師地論 점토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pp. 57-77.

남풍현(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한국서지학회, pp. 5-45.

남풍현(2002), 「고려시대 각필점토 석독구결의 종류와 그 해독-진본화엄경 권20의 점토석독구결을 중심으로」, 『조선학보』 183, 조선학회, pp. 1-22.

남풍현 · 이승재 · 윤행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訓點學會, 東京, pp. 69-102.

박진호(2003), 「周本 『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口訣硏究』 11, pp. 211-248.

박진호(2004), 「周本 ≪화엄경≫ 권제육의 점토 중복 표기와 부호」, 『口訣硏究』 13, pp. 129-148.

서민욱(2004),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第30回 口訣學會 共同硏究會 發表論文集』, 별지.

윤행순(2003), 「漢文讀法에 쓰여진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오코토點의 比較-『瑜伽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中心으로-」, 『口訣硏究』 10, pp. 79-113.

이승재(2000ㄱ), 「初雕本 瑜伽師地論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第23回 口訣學會 共同硏究會 發表論文集』, pp. 59-69.

이승재(2000ㄴ),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pp. 135-152.

이승재(2001),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珖鎬先生 回甲紀念論叢), 太學社, pp. 229-250.

이승재 · 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pp. 115-145.

이승재(2004), 「角筆 符號口訣의 意義와 硏究 方法」, 『口訣硏究』 13, pp. 289-316.

李丞宰(2005),「韓國 符點口訣의 記入 位置」,『朝鮮學報』194, pp. 1-25.
이승재 외(2005),『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1, 태학사.
이 용(2004),『점토석독구결 연구의 현황』,『한국문화』3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장경준(2002ㄱ),「『瑜伽師地論』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 2. 23) 발표 원고.
장경준(2002ㄴ),「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유가사지론』권5, 8을 대상으로-」,『口訣硏究』9, pp. 205-225.
장경준(2002ㄷ),「구결점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 -『유가사지론』권5, 8을 대상으로-」,『국어사 자료 연구』3, 국어사자료학회, pp. 5-30.
장경준(2003),「『유가사지론』점토석독구결의 '지시선'에 대하여」,『口訣硏究』11, pp. 189-209.
장경준(2004),「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口訣硏究』13, pp. 149-174.
정재영 외(2003),『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太學社.
小林芳規(2002),「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구결연구』8, pp. 21-76.
小林芳規(2003),「新羅經典에 記入된 角筆 文字와 符號 - 京都・大谷大學藏『判比量論』에서의 발견-」,『구결연구』10, 5-30.
小林芳規・西村浩子(2001),「韓國遺存の 角筆文獻 調査報告」,『訓點語と訓點資料』107, 訓點學會, 東京, pp. 36-68.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교직부〕
E-mail: leeyonghu@hanmail.net
접수일자: 2005. 6. 25.
게재결정: 2005. 7. 30.

# 角筆口訣資料の漢字と口訣点の相關關係について

李　勇

本稿は『瑜伽師地論』巻5・8の漢字とその各々の漢字に懸吐された角筆口訣点が持つ相關關係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このような目的の下に主に次のような3つの問題を論じた。第一に、角筆口訣点の基準位置と變異位置についての理解である。この論議のためにまず角筆口訣点の懸吐は漢字を四角形と仮定して懸吐されるということと、このために基準角の変異が現れるということを調査してみた。併せて、基準角が決められると實際の物理的位置の変化はさほど現れないという事實も調査した。これに基づいて四角形の四辺が互いに密接な關係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も調査してみた。

第二に、その分析に基づいて漢字の字形と角筆口訣点が相關關係を持っていることを調査した。漢字の字形を '□, △, ▽, ◇'に分けて '△, ▽'に該当するものを集中的に観察し、'□'から外れるものほど点吐を記入する位置の變異が大きくなることがわかった。偏と旁に分かれる漢字も上下に分かれる漢字もやはり角筆口訣点の懸吐に影響を及ぼしていた。偏と旁に分かれる漢字の場合は偏と旁を各々1：1と把握して点を懸吐する傾向もあった。

第三に、漢字の字形のために点が不確實な位置に記入されているように見える場合があるが、この場合には指示線、境界線、口訣字が補助的に使われていた。

キーワード: 瑜伽師地論、角筆口訣、漢字、指示線、境界線